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 현안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PART 1

국정 현안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2022.7.22

조사내용

성별, 연령, 지역

현 정부 평가 및 배우자 활동 평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느낌

대통령 강점·약점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기억나는 장면(1+2순위)

현시점과 대선 당시의 윤 대통령 이미지 비교

윤 대통령 측면별 평가

배우자 호감도

배우자 활동 평가

배우자 관련 논란

배우자 활동이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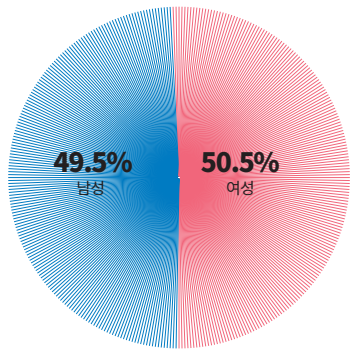
조사개요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 여론조사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151명
표집방법	2022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오차	±2.9%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63.0% [온라인 가입 패널 중 24,282명에 발송] [총 1,826명 연결, 중도이탈 675명, 완료응답 1,151명]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6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조사기간	2022년 07월 14~15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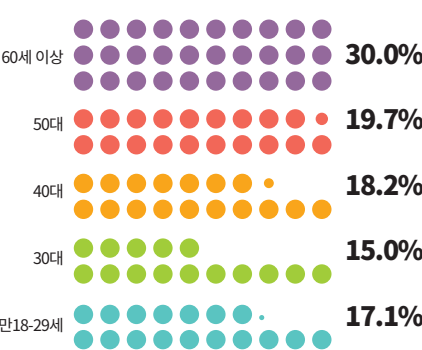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전체		1151	100.0%	1151	100.0%	1.00
성별		남성	593	51.5	570	49.5	0.96
		여성	558	48.5	581	50.5	1.04
연령		만18-29세	195	16.9	197	17.1	1.01
		30대	188	16.3	173	15.0	0.92
		40대	239	20.8	209	18.2	0.87
		50대	235	20.4	227	19.7	0.97
		60세 이상	294	25.5	345	30.0	1.17
지역		서울	218	18.9	218	18.9	1.00
		인천·경기	358	31.1	365	31.7	1.02
		대전·세종·충청	133	11.6	125	10.9	0.94
		광주·전라	111	9.6	109	9.5	0.98
		대구·경북	111	9.6	113	9.8	1.02
		부산·울산·경남	171	14.9	173	15.0	1.01
		강원·제주	49	4.3	48	4.2	0.98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맞음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계표의 같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부 분석은 개별 응답 사례수의 오차범위를 측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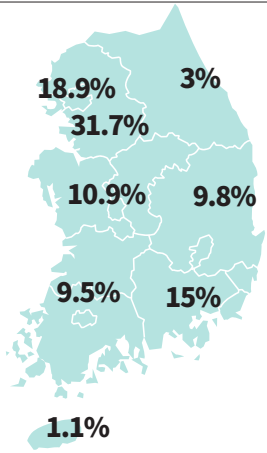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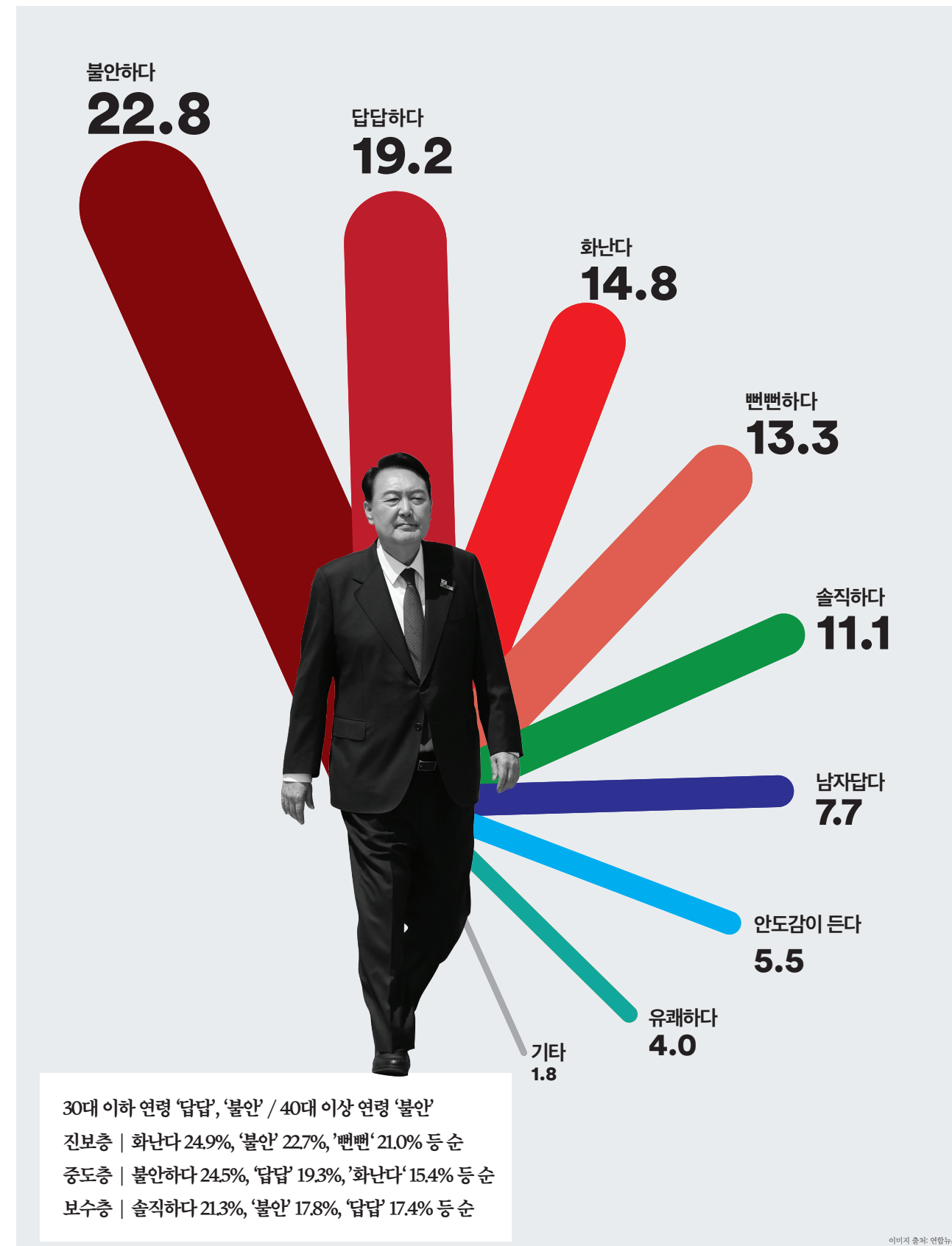
지역



대통령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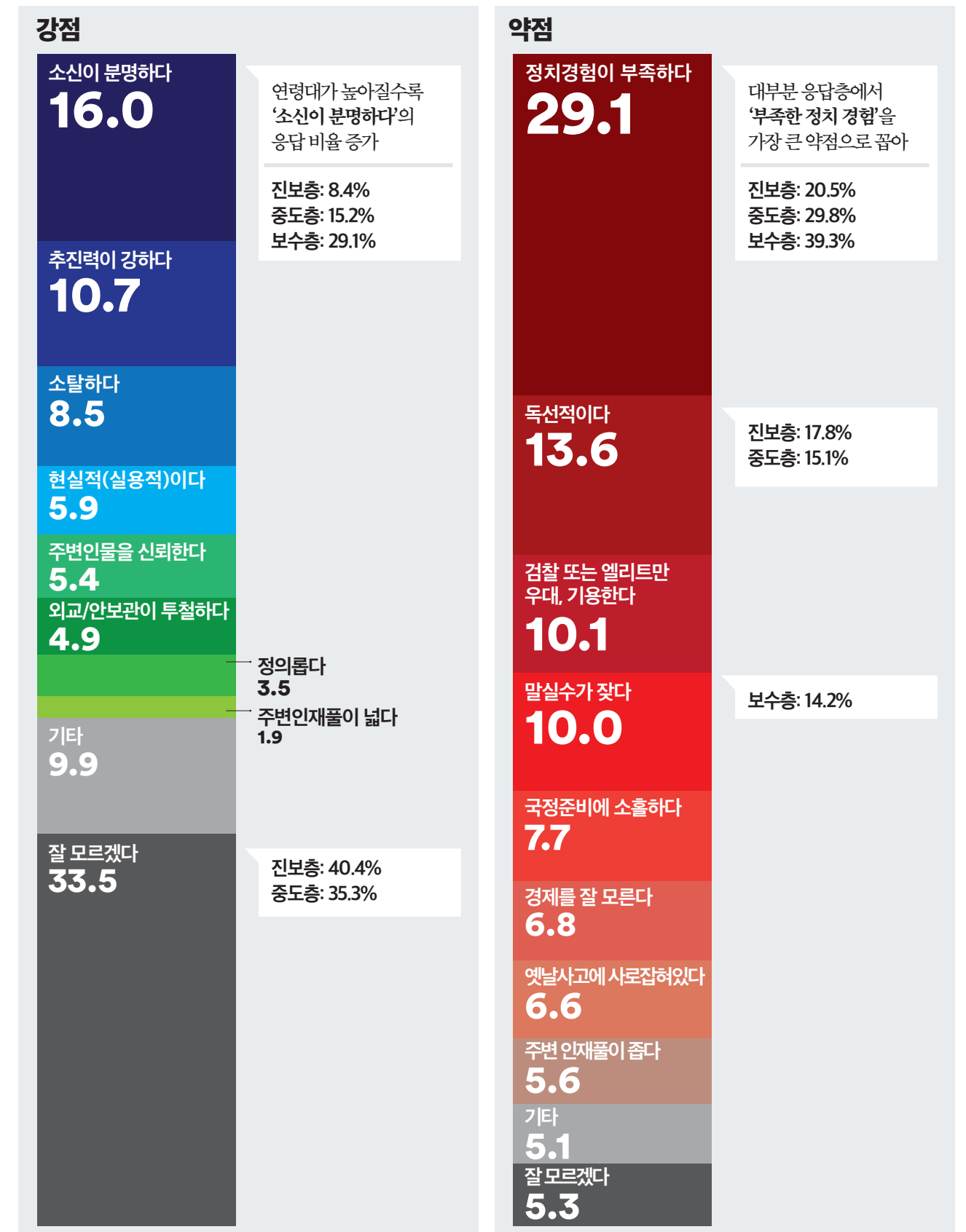
대통령 개인에 대한 느낌

Q. 다음 보기의 어휘들 중에서 윤 대통령 개인에게 귀하께서 느끼는 감정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대통령 강점과 약점

Q.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약점 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Q. 현재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연상이미지 분석 단어 정리 1. 부정 내용 분석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한 단어로 표현케 한 결과를 크게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류해 본 결과, 긍정 (16.4%)보다 부정(68.7%)이 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보수층에서 조차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음



獨

홀로 독

독불장군

독선(獨善)	“전 정부에 트집만 잡고, 전 정부보다 더 잘하는 건 없는 독선적인 정치”
독단(獨斷)	“체계가 없고 어설프고 독단적이다”
독재(獨裁)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재현”
고집불통 (固執不通)	“소귀에 경 읽기”
막무가내 (莫無可奈)	“자기 맘대로 엉망진창에 국민은 신경 쓰지 않는”
무데뽀 (無鐵砲)	“문재인 정부 욕하던 거 똑같이 답습하면서 초반 국정 운영을 눈치도 안보고 함”
안하무인 (眼下無人)	“2030 세대와의 약속을 안 지키는 아주 안하무인 대통령”
“우이독경(牛耳讀經)”, “일방통행(一方通)”, “막가파”, “내로남불” 등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 재산을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자신의 사유재산인 양 처리하고 있다.”	
“주변인물 위주인 검찰 조직과의 독단적인 행정 및 정책 추진이 가장 큰 문제”	

無

없을 무

무-무-무

무식(無識)	“아주 무식하고 그 무식이 하늘을 찌르고 무식이 줄줄 흐릅니다”
무능(無能)	“우리나라가 50개국 부도 국가 예상반열에 들어섰다는 보도를 봤는데 무능한 정권에 분노심이 생긴다.”
무지(無知)	“경제, 외교, 안보, 상식, 시장 등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 ”
“어쩌다 당선되더니 직무역량을 위한 노력과 변화는 전혀 안 보이고 되지도 않는 함량 미달에 비도덕적인 자들을 기용하는 등 엽기적이게도 대통령 놀이에 취해 있다는 느낌뿐...”	

初

처음 초

초보, 왕초보

경험부족	“정치전반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머리속에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준 종이의 내용을 읽는 것 같다.”
아마추어	“어쩌다 대통령이 된 대통령과 아마추어 정부” “동네 조폭처럼 말과 몸짓/ 그리고 운영을 보면 일반 국민이 봐도 아마추어 같은..” “미숙”, “미완성”

연상이미지 분석 단어 정리 1. 부정 내용 분석

<div>難<small>어려울 난</small></div> <div><div><div>오리무중 (五里霧中)</div><div>“안개 속에 서 있는 느낌이다.”</div></div><div><div>우왕좌왕 (右往左往)</div><div>“정신이 없이 따로 논다.”</div></div><div><div>중구난방 (衆口難防)</div><div>“중구난방식 국정 운영이다.”</div></div><div><div>좌충우돌 (左衝右突)</div><div>“생각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다.”</div></div><div><div>천방지축 (天方地軸)</div><div>“마스터플랜이 없어 천방지축...”</div></div><div><div>“어영부영”, “주먹구구”, “얼렁뚱땅”, “애매모호”, “엉망진창”, “뒤죽박죽”, “졸속”, “개판” 등</div></div></div>	<div>沓<small>겹칠 답</small></div> <div><div><div>“답답 그 자체임,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div><div>“답답하고 속이 터진다.”</div><div>“고구마~”</div><div>“노답!”</div></div></div>
<div>亡<small>망할 망</small></div> <div><div><div>망조(亡兆)</div><div>“나라 망하기 직전인 것 같다.” “나라 망치기....”</div></div><div><div>멸망(滅亡)</div><div>“국가소멸”, “국가 부도”</div></div><div><div>폭망</div><div>“독선적이며 경제 외교에서 폭망 각이다..”</div></div><div><div>무정부</div><div>“오합지졸들로 정부가 없는 나라가 되어 간다.”</div></div><div><div>“파탄”, “도로박” 등</div></div></div>	<div>醜<small>추할 추</small></div> <div><div><div>“뻔뻔함과 무능함의 콜라보!”</div><div>“뻔뻔함과 아마추어리즘의 극치”</div><div>“역겨운 쓰레기들의 오합지졸”</div></div></div>

憂

근심 우

어떡하지...?

우려(憂慮) “말실수가 많아 불안하다..”

불안(不安) “물가에 내놓은 어린이 처럼 불안하다.”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 오로지 전 정권 탓과 전 정권 수사에 전력투구하며,
현재의 경제위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검찰 엘리트 정치”, “검찰 출신만 기용”, “검찰/지인 사유화 정부”

“검찰공화국 내에서 celebrity가 되고 싶은 부부의 공동 운영”

操

잡을 조

“조종(操縱)당하는 꼭두각시 정부”

“얼굴마담”

“당원들에게 휘둘리는 정치”

“비선과 무속신앙이 국정운영의 주체”

“대통령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것 같다.”

“가신 아닌 간신들에 둘러싸여 왕으로서
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대통령.
선장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 잡부들이 운전하는 함대.”

悔

뉘우칠 회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뚜렷하게 방향이 잡혀지지 않았다.”

“요즘 국제경제엔 대책이 없다는 발언에 실망했다.”

“믿음직스럽지 않다 기대할수록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

“많은 유권자가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며
윤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는데,
요즘 실망스러운 일이 한 둘이 아니네요.”

“앞으로가 더 걱정임...

왜 선거라도 다시 해야 심판받고 잘 하려나..
다 알아엿고 싶다.”



强

강할 강

“추진력(推進力) :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믿음이 간다.”
“용감하고 추진력이 있고, 박력이 있다.”
“(파워) 한다면 한다.”
“(책임) 뉘은 말은 반드시 이뤄낸다.”
“추진력”, “열정”, “과감성”
“우직하니 국정운영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정립을 다시 하고 있다.”

快

쾌할 쾌

“통쾌(痛快) : 시원시원하게 자신감 있게 하시는 듯하다.”
“시원함을 준다.”
“스마트하다.”

確

굳을 확

“所信(소신) : 소신있게 운영한다”
“소신껏 하는 사람”, “소신정치 실천 중”
“법과 원칙대로 소신 있게 일을 잘 해서 믿음이 감.”

公

공평할 공

“공정(公正)과 상식(常識)”
“공정, 정의, 평등의 실현”
“공정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
“자유 헌법수호와 공정과 상식 ”

新

새 신

“새로움: 정치 무경험의 약점에 반대로 신선한 시도도 많아서 좋다.”
“신선감: : 새로운 정권이라 참신하다.”

期

기약할 기

“기대감(期待感) :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대기만성형 대통령”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
“정상회귀, 정상화 등”

好

좋을 호

“선호(選好) : 그냥 너무 좋다.”
“호감(好感) : 좋습니다”
“잘 하고 있다 힘내라! 그리고 평가에 연연하지 마라~”

연상이미지 분석 문장들 - 60자 이상의 응답내용

염려와 실망

- 1. 너무나 무능하고 측근 인물 수의계약 등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 2. 검찰공화국에서 나타나듯 독선적이며 경제 외교에서 폭망 각이다
- 3.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 재산을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자신의 사유재산인양 처리하고 있다
- 4. 법과 원칙을 입으로만 떠들며 자신의 가족의 비리는 수사도 안 한다
- 5. 우리나라가 50개국 부도 국가 예상반열에 들어섰다는 보도를 봤는데 무능한 정권에 분노심이 생긴다
- 6. 코로나방역 등 하는 것을 보니 망국적인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자질이 부족함
대통령으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이념· 사고· 개인적 성향을 갖추지 못함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음
주변인물 위주인 검찰 조직과의 독단적인 행정 및 정책 추진이 가장 큰 문제

국민 의견이나 생각보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고, 대통령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독선과 아집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말만 믿는 편협한 사고도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본인 포함 많은 유권자가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며 윤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는데, 요즘 실망스러운 일이 한 둘이 아니네요

동네 조폭 같은 말과 몸짓, 그리고 운영을 보면 일반 국민이 봐도 아마추어 같은...
격이 썬티가 너무 난다. 거기에 여당도 톨마니처럼 움직이는 것이 가관이다.
그러고도 창피함을 모르니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요즘 국제경제엔 대책이 없다는 발언에 실망했음.
우리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IMF도 극복한 민족이니 조그만 어렵더라도 참고 위기를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같이 극복합시다라는 발언을 해야지 대통령이지요~

어쩌다 당선되더니 직무역량을 위한 노력과 변화는 전혀 안 보이고 되도 않는 함량 미달에 비도덕적인 자들을 기용하는 등 대통령 놀이에 취해 있다는 느낌뿐이다.

바람-응원-믿음

때로는 소신껏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강하면 부러지듯이 우선 민생을 살피셔서 출산을 꺼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서민들도 내 집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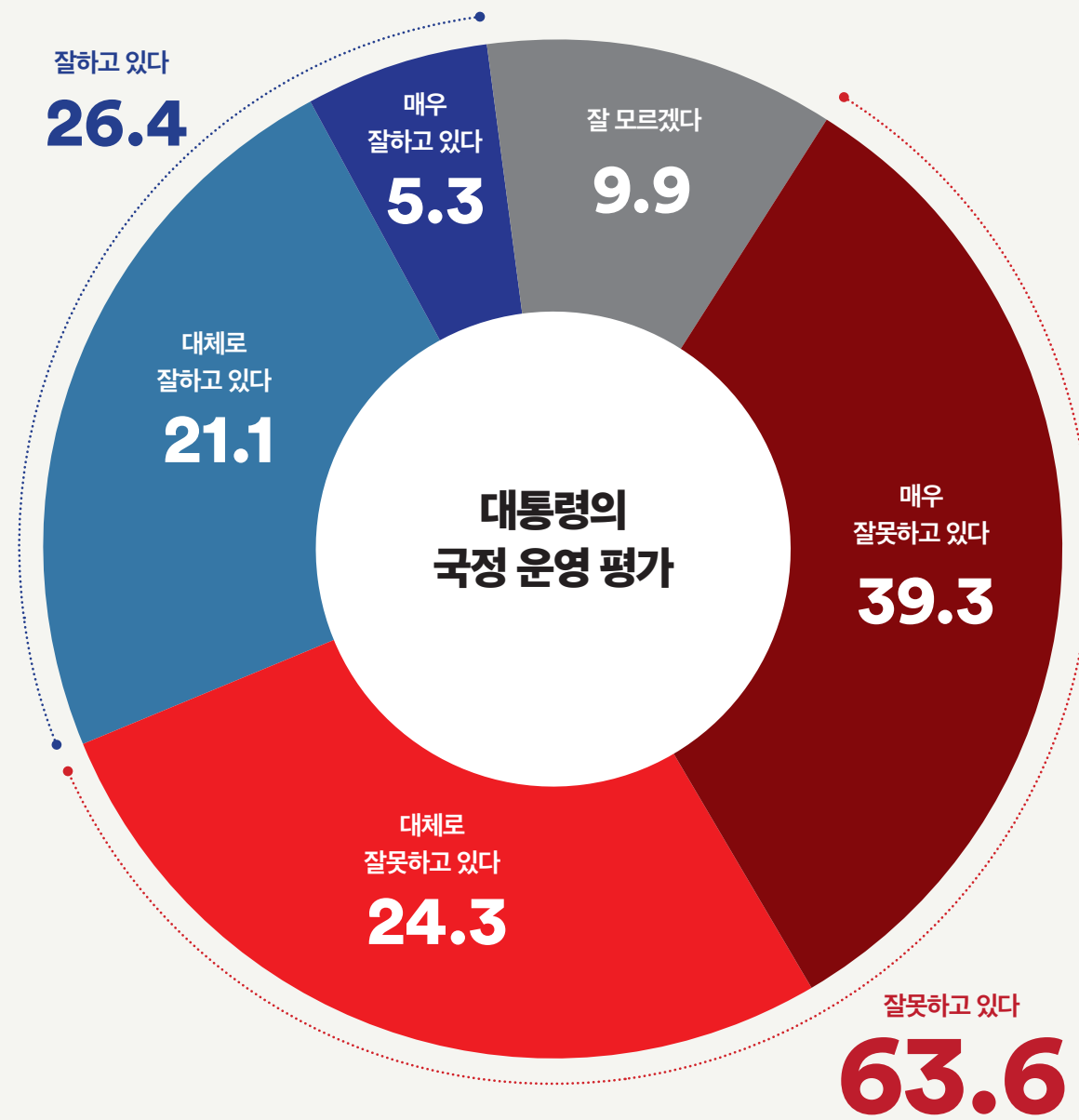
정치 무경험이 약점이지만 반대로 신선한 시도도 많아서 좋다.
영부인을 관리하는 부서를 배치하여 일부여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현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 세력이 부정선거· 문재인 정권 부패· 비리 등을 덮기 위해서 이런저런 꼬트리를 잡고 있지만, 우직하니 국정운영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정립을 다시 하고 있다. 우직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현 정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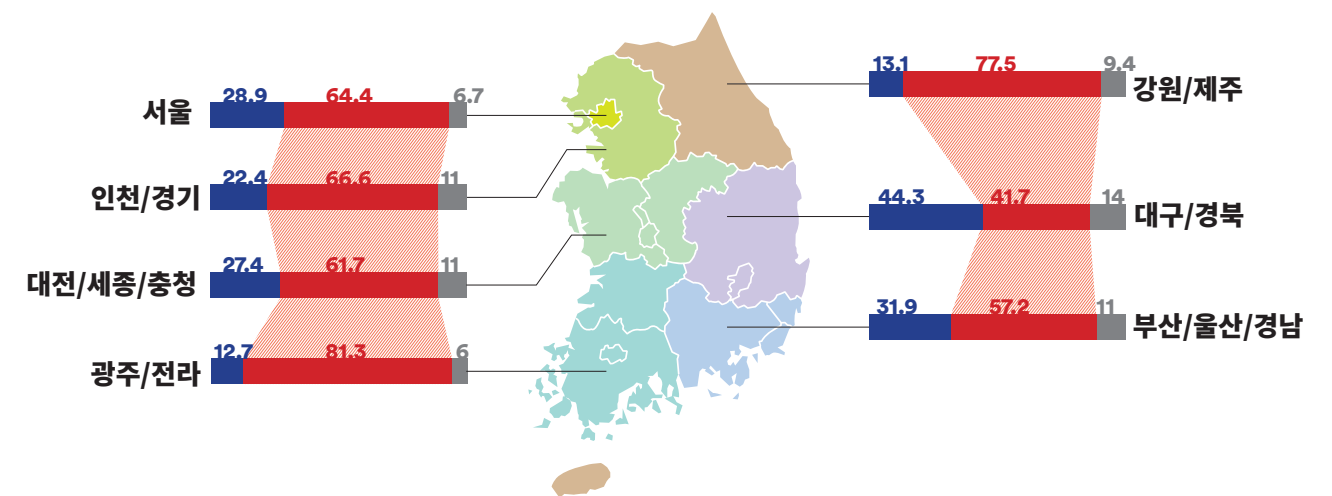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Q. 귀하께서 생각하실 때,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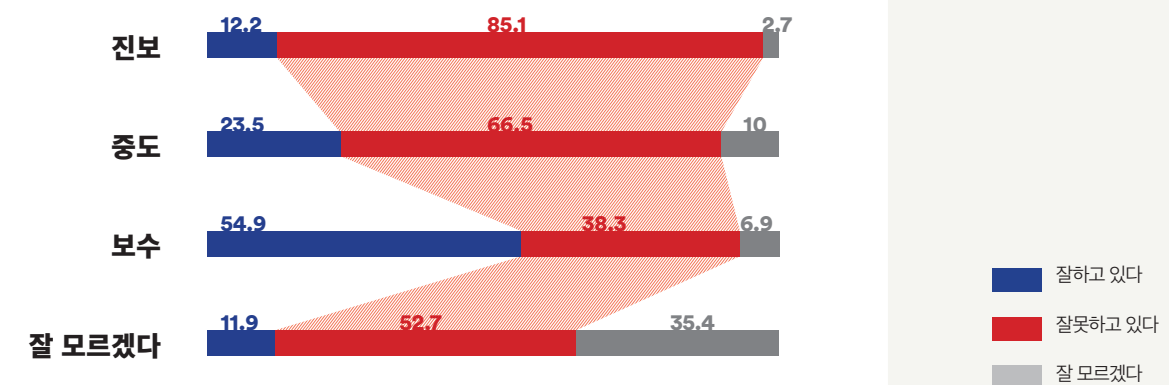


대구·경북(긍정 44.3%, 부정 41.7%) 제외 모든 권역에서 부정 평가가 앞섬
대구·경북과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 40% 근접/이상 (보수층 불만 누적)
진보층 | '긍정 평가' 12.2%, '부정 평가' 85.1%,
중도층 | '긍정 평가' 23.5%, '부정 평가' 66.5%,
보수층 | '긍정 평가' 54.9%, '부정 평가' 38.3%.

거주권역별 평가



이념성향 별 평가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잘 모르겠다



현 정부 이미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기억나는 장면 (1+2순위)

Q.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지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부터 2가지를 선택해주세요

29.7%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장관 기용



27.7%

대통령 출근길 중
기자와 문답^(도어스테핑)



26.4%

사정 기관의
검찰 출신 인사 집중 중용



22.8%

이준석 당대표등
국민의 힘 내부 갈등



20%

대통령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외활동



17.9%

원자력 발전 드라이브

17.3%

장관후보 낙마등 인사 문제

13.5%

노록 악수등
나토정상회담 관련 논란

7.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등 지급

7.3

잘 모르겠다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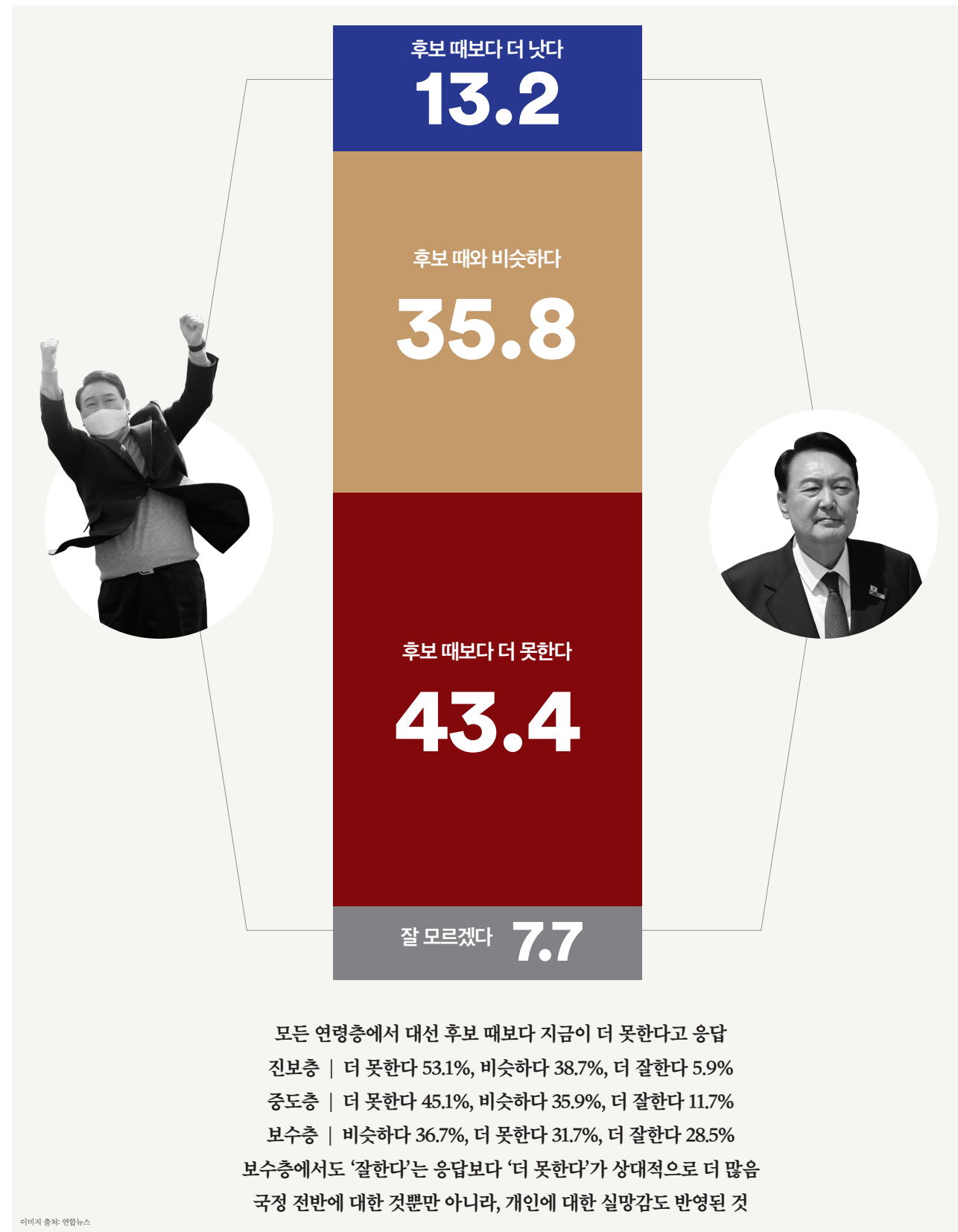
기타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후보-대통령

현시점과 대선 당시의 윤 대통령 이미지 비교

Q. 다음 보기의 어휘들 중에서 윤 대통령 개인에게 귀하께서 느끼는 감정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 측면별 평가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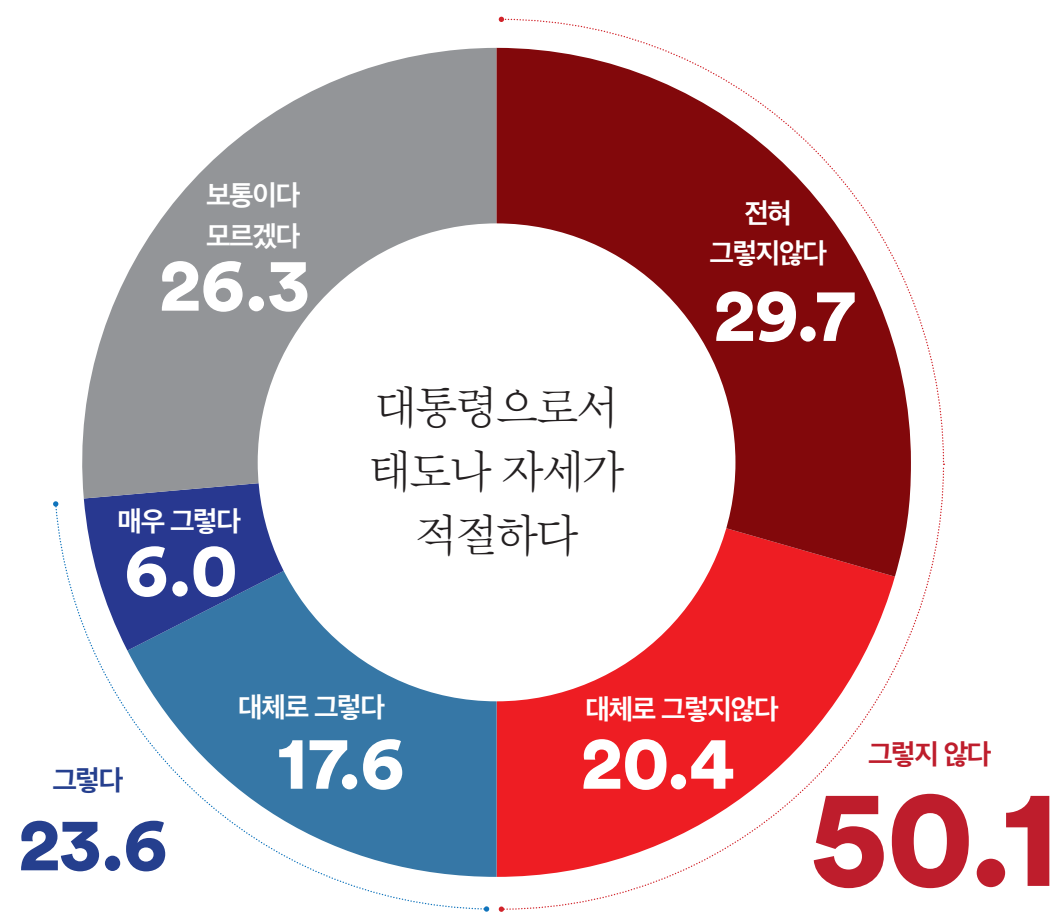
태도의 적절성	인사의 적절성	국정 방향의 적절성
민심 이해도	국민 통합 노력	경청 노력 유무
소신과 개혁성	국민 소통 노력	공약 이행 의지
국가 비전 유무	경제 역량 유무	

평가 종합 평가내용 분석

윤 대통령 측면별 평가

태도의 적절성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통령으로서 태도나 자세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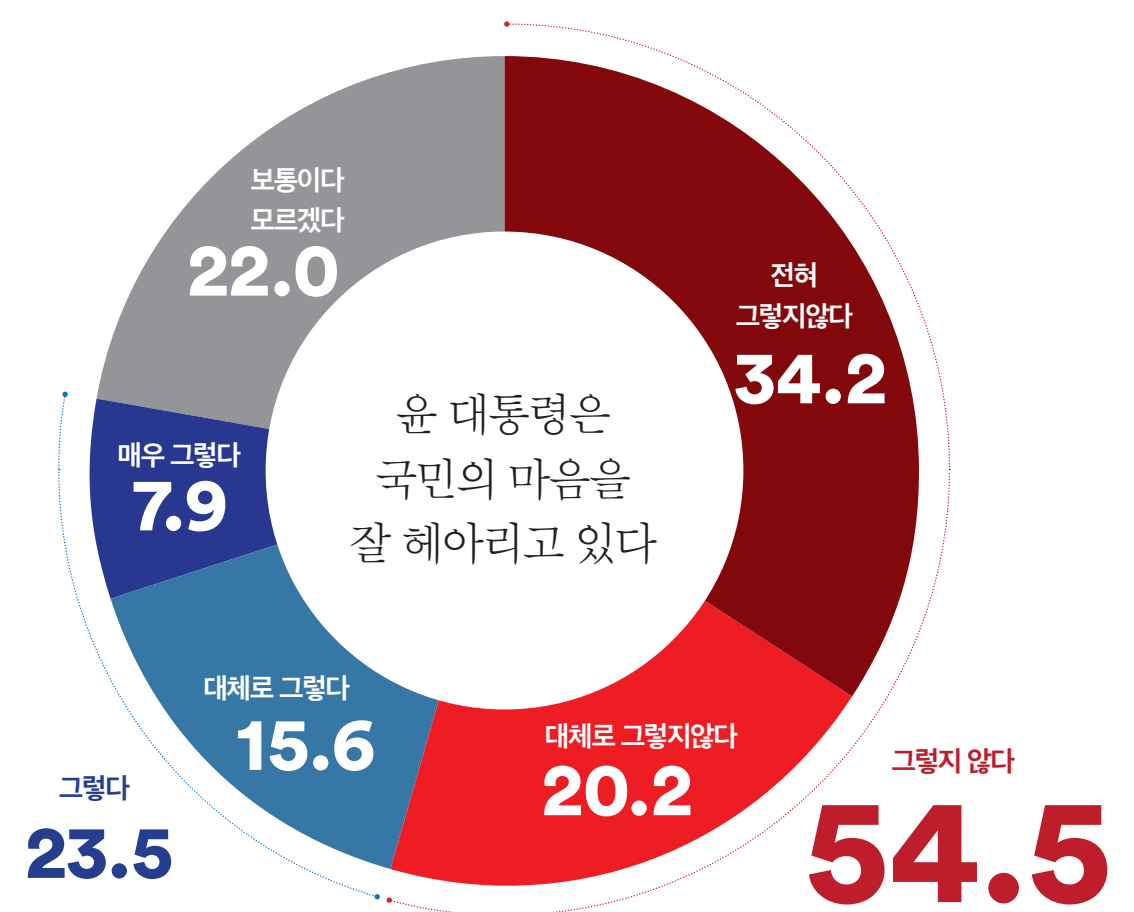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상대적 부정 우세, 나머지 권역 부정 우세
모든 연령, 성별에서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이 긍정 대비 높음
보수층에서도 4명 중 1명은 태도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

진보층 | 그렇지 않다 76.6%, '그렇다' 14.5%
중도층 | 그렇지 않다 49.4%, '그렇다' 21.3%
보수층 | 그렇지 않다 25.4%, '그렇다' 44.1%

민심 이해도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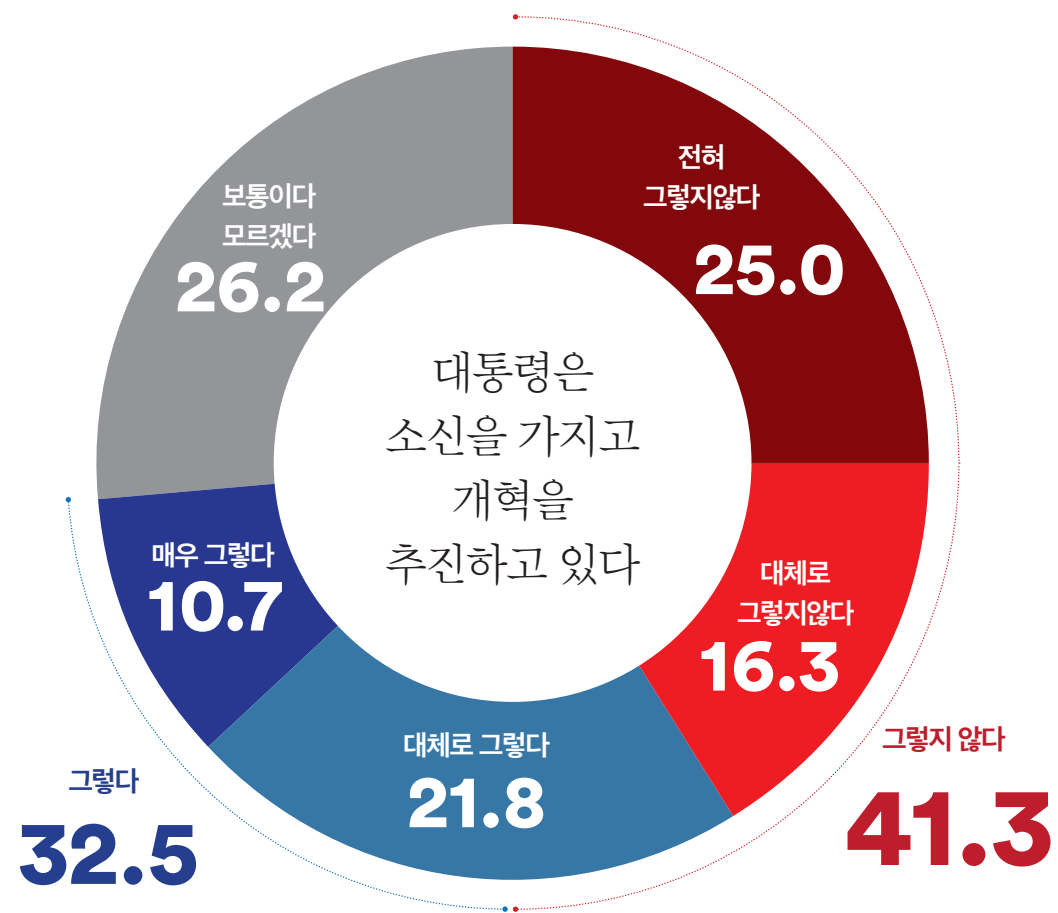


60세 이상 연령대 절반, 보수층 약 30%가 부정 평가

윤 대통령 측면별 평가

소신과 개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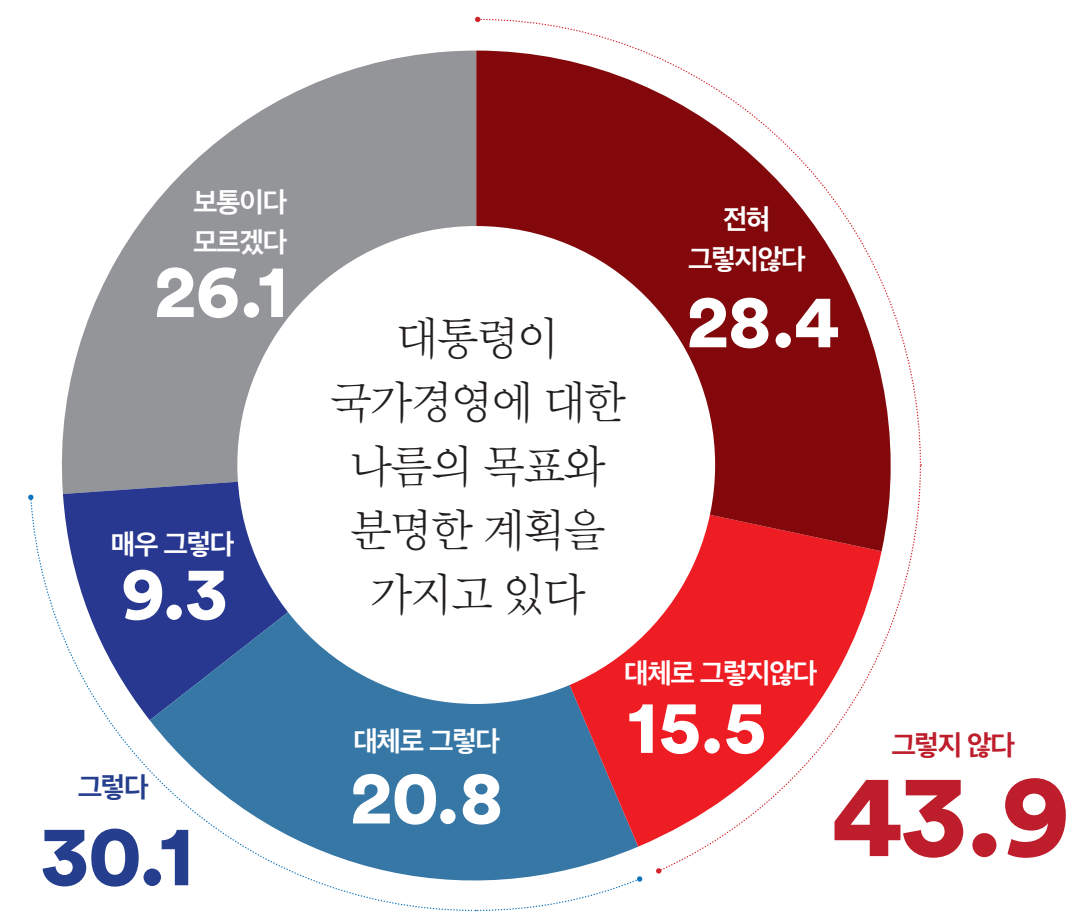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소신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45.7%) 긍정 우세
부산·울산·경남(40.0%) 긍정 상대적 우세
인천·경기(44.5%), 광주·전라(58.8%) 부정 우세
50대 이하 부정 우세, 60세 이상 긍정 상대적 우세

국가 비전 유무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국가경영에 대한 나침의 목표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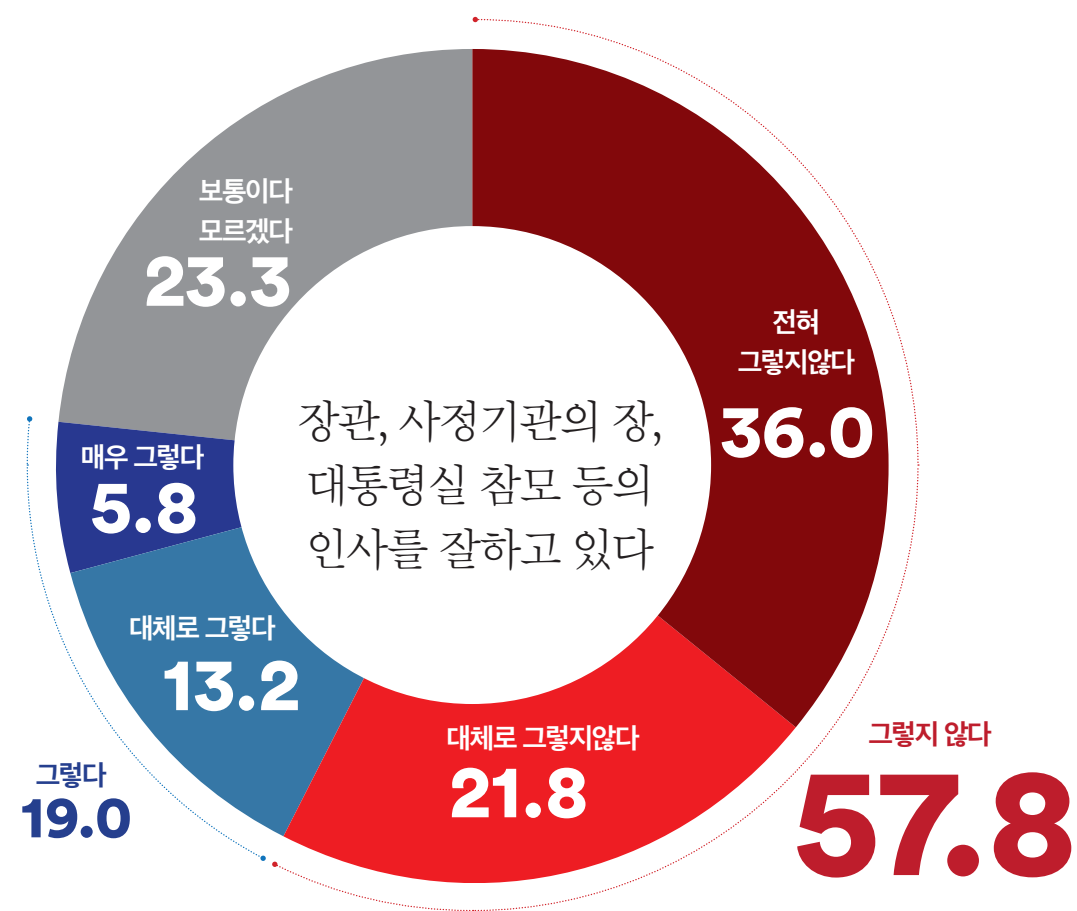
대구·경북(41.0%), 부산·울산·경남(38.4%) 긍정이 상대적으로 우세
보수층은 긍정 (53.3%) 우세
진보층(65.3%)과 중도층(44.5%)에서는 부정 우세



윤 대통령 측면별 평가

인사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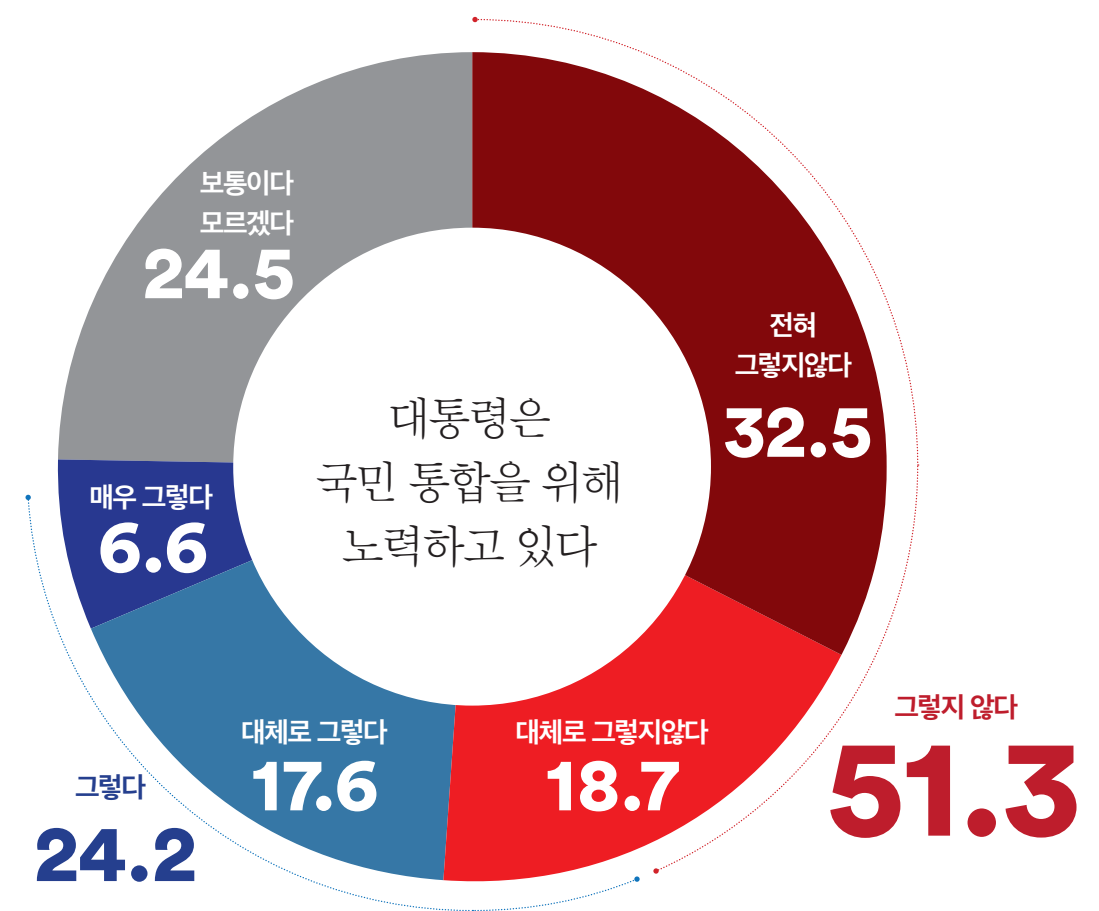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장관, 사정기관의 장, 대통령실 참모 등의 인사를 잘하고 있다.”



대구·경북(42.1%)과 부산·울산·경남(44.7%)에서도 부정이 긍정 대비 앞섬
보수층에서는 긍정 33.8% vs. 부정 35.8%로 백중세

국민 통합 노력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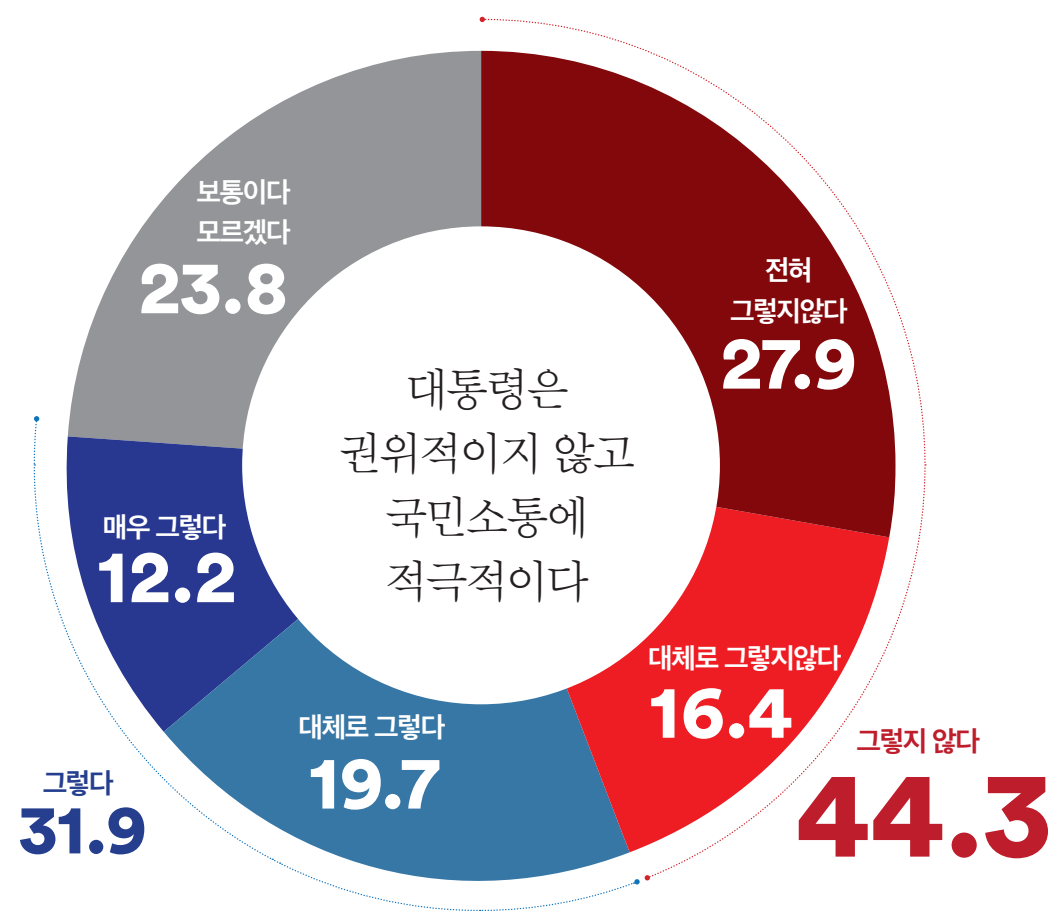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46.2%로 부정 대비 우세
반면, 진보층(72.1%), 중도층(53.8%)은 부정 평가 우세



윤 대통령 측면별 평가

국민 소통 노력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권위적이지 않고 국민소통에 적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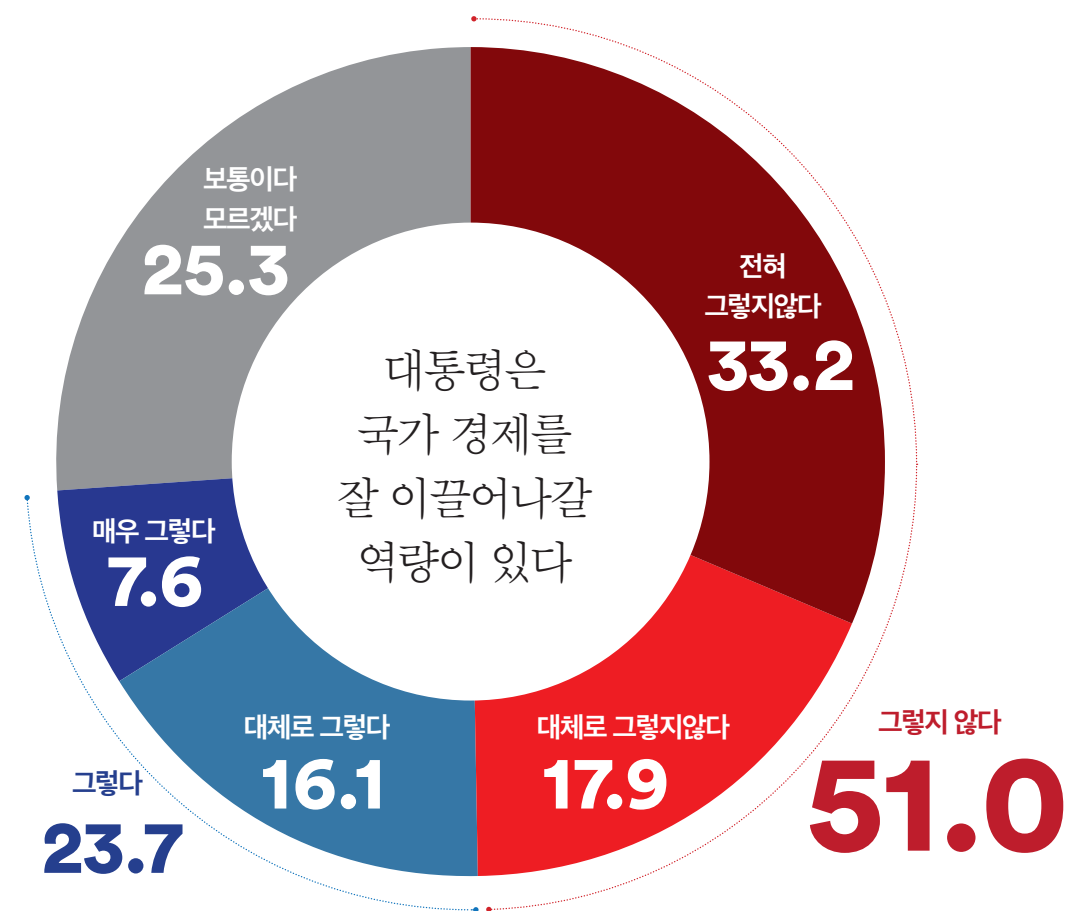


인천·경기(48.1%)와 광주·전라(68.0%)에서는 긍정 대비 부정 평가 우세
대구·경북(47.0%)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 우세

연령대 중 60세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섬
보수층 긍정 평가가 60.4%로 부정 평가 대비 높음
반면, 진보층(71.3%), 중도층(43.8%)은 부정 평가가 더 높음

경제 역량 유무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역량이 있다”



대구·경북(37.0%)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 평가 우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대비 오차범위 내에서 8.9%p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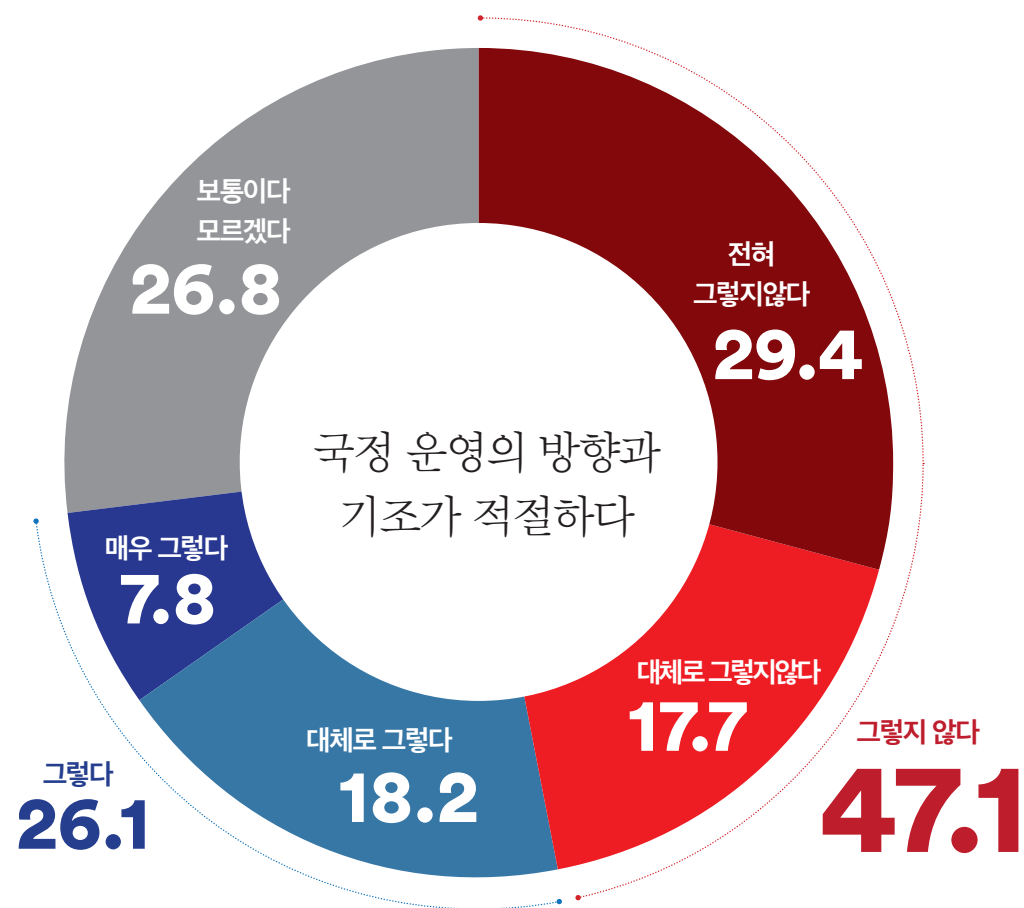
보수층 긍정 평가는 46.2%로 부정 대비 높음
반면, 진보층(74.1%), 중도층(52.4%)은 부정 평가가 더 높음



윤 대통령 측면별 평가

국정 방향의 적절성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정 운영의 방향과 기조가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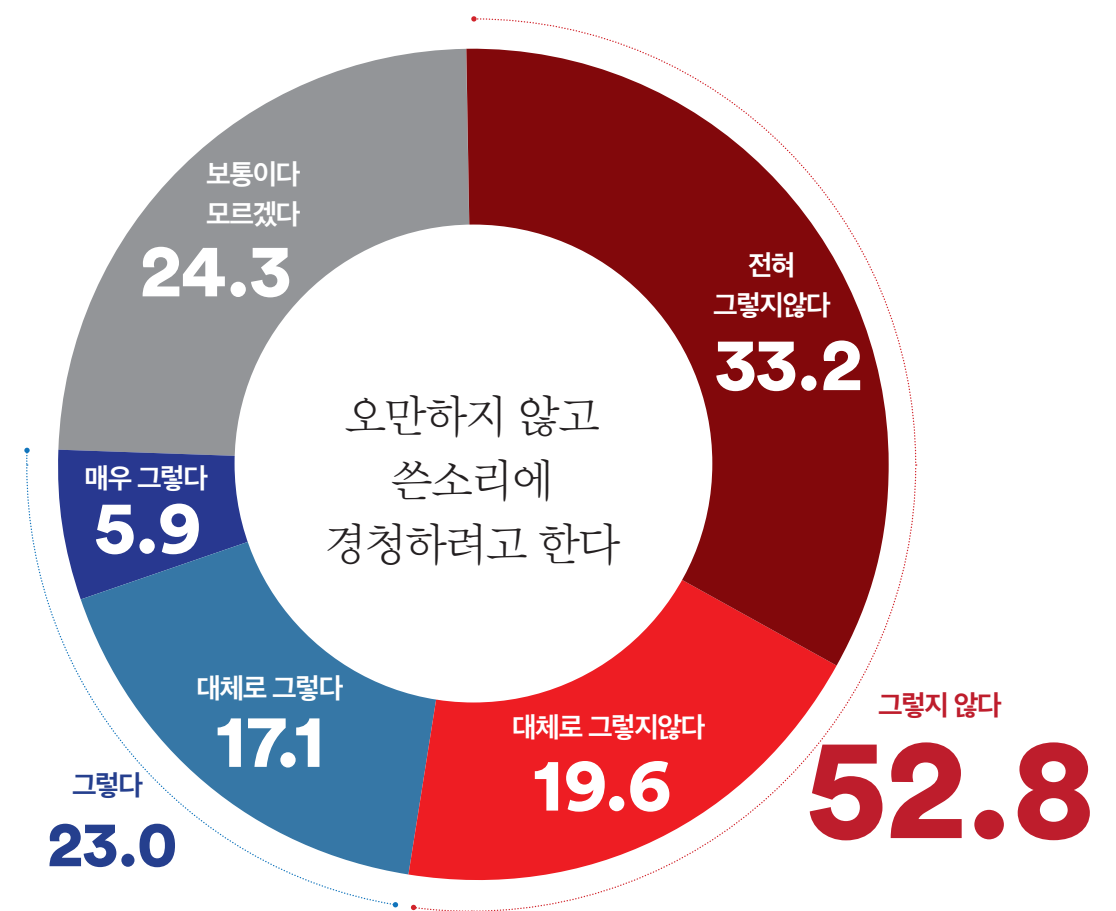


대구·경북(39.6%), 부산·울산·경남(34.3%)을 제외한 지역에서 부정 평가 우세

연령대 중 60세 이상에서는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54.2%로 부정 대비 우세
반면, 진보층(70.8%)과 중도층(48.2%)은 부정 평가 우세

경청 노력 유무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오만하지 않고 쓴소리에 경청하려고 한다”



대구·경북(35.2%)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대비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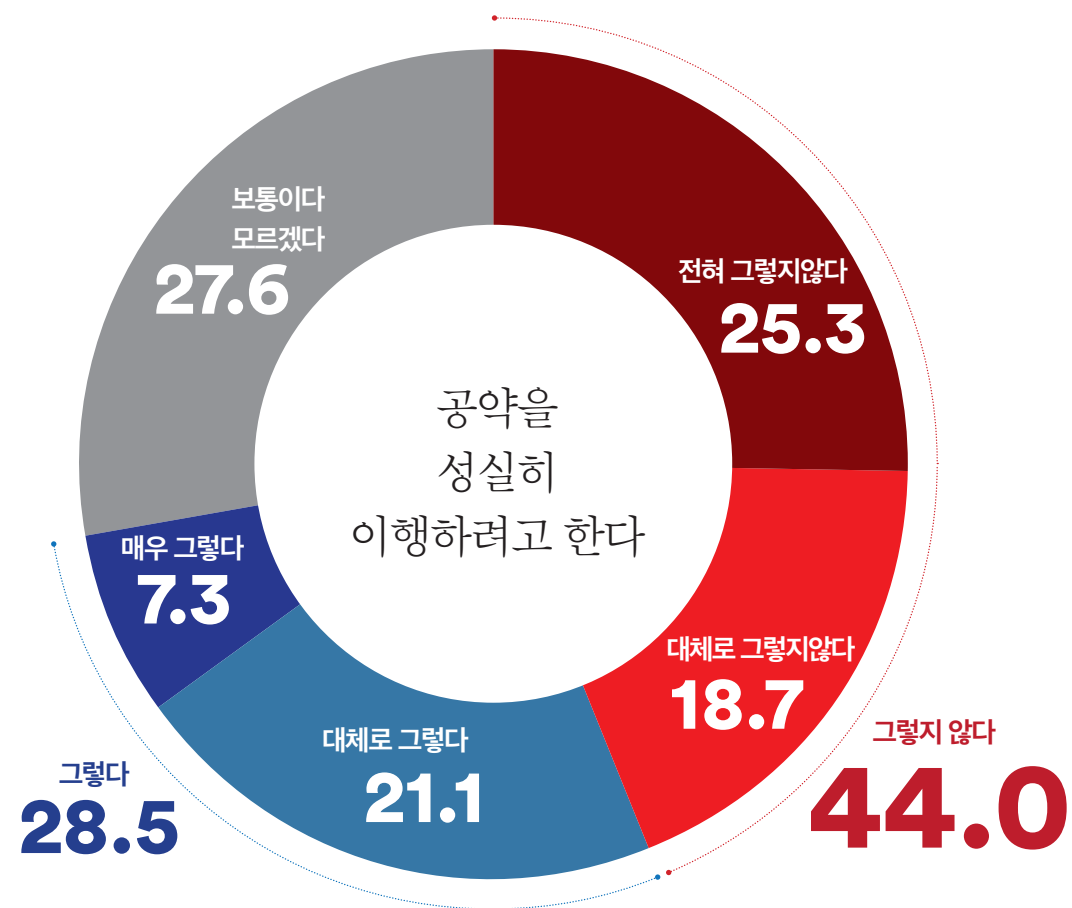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44.8%로 부정 대비 우세
반면, 진보층(75.2%)과 중도층(55.6%)은 부정 평가 우세



윤 대통령 측면별 평가

공약 이행 의지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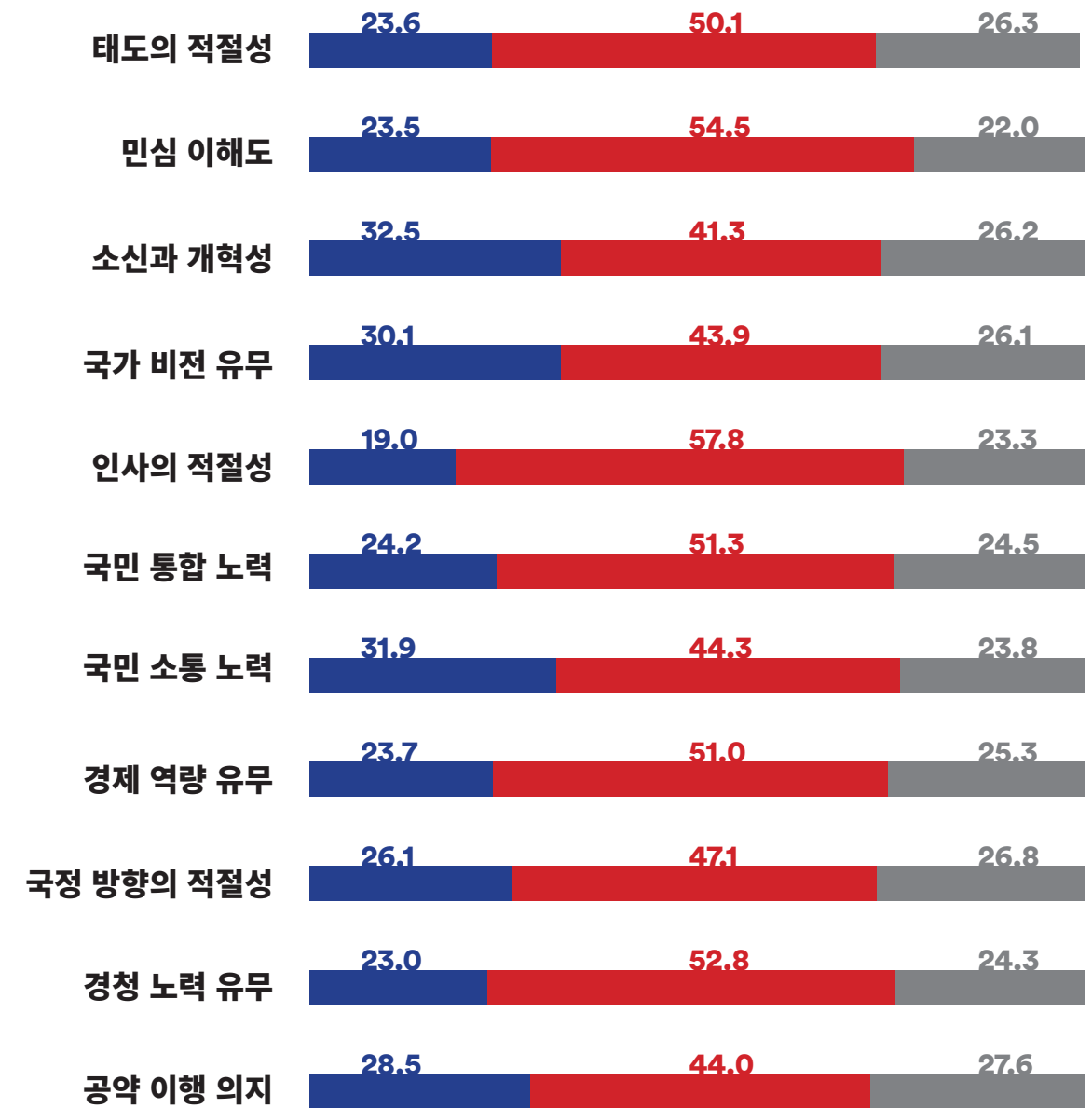


대구·경북(42.4%), 부산·울산·경남(37.8%)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 우세
인천·경기(47.1%), 대전·세종·충청(46.2%), 광주·전라(63.8%)는 부정 우세

60세 이상(부정: 37.5%)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대비 부정평가 우세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55.7%로 부정 대비 우세
반면, 진보층(67.0%)과 중도층(43.0%)은 부정 평가 우세

평가 종합

Q. 윤 대통령에 대해 다음 각 측면별로 귀하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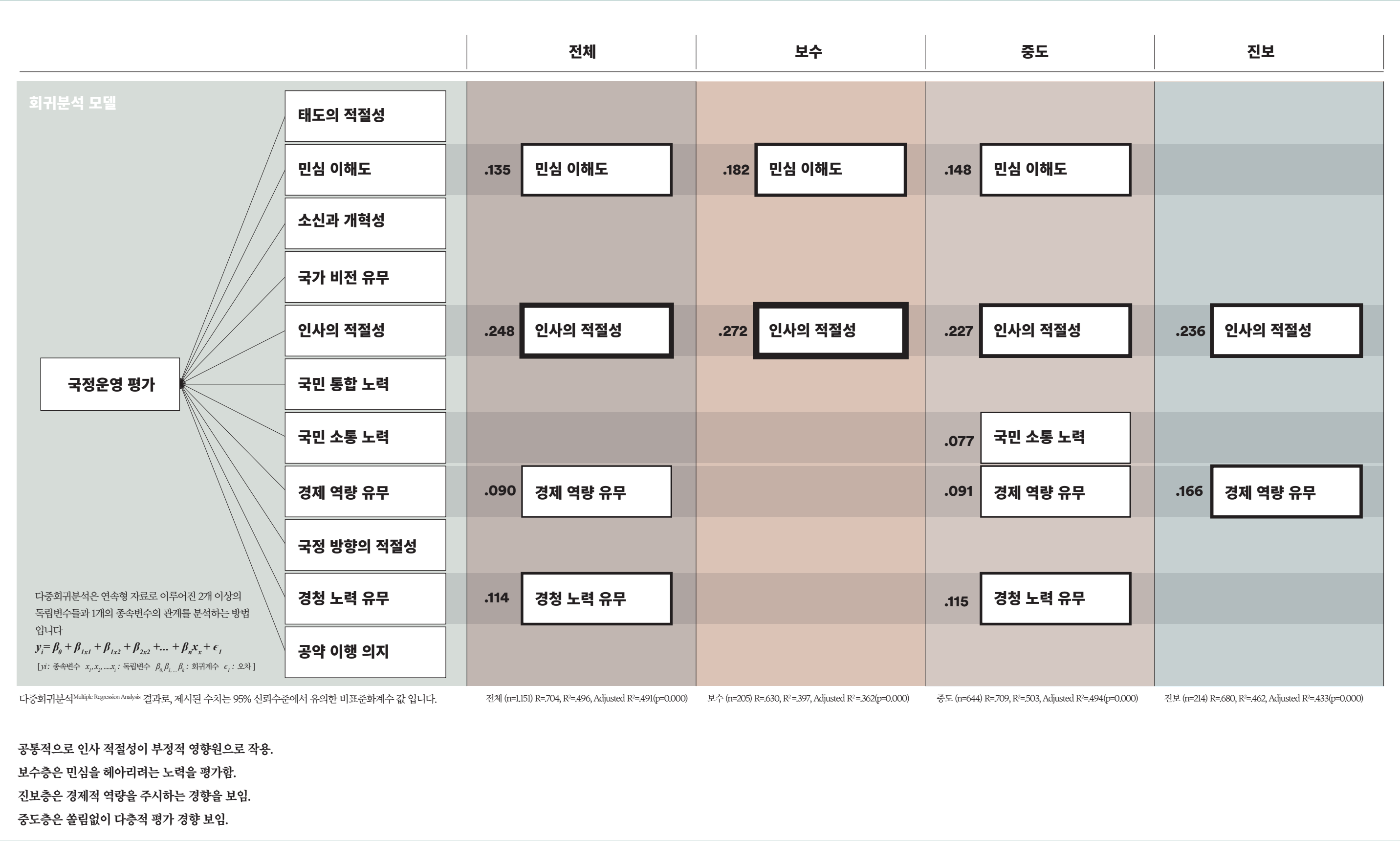
모든 측면('소신과 개혁성' 측면 제외)에서 긍정 대비 부정 응답이 많았음
'소신과 개혁성' 측면 역시 상대적으로 부정 응답 비율이 높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측면은 '인사의 적절성'
긍-부정 격차 최저 '소신과 개혁성'(8.8%) / 최대 '인사의 적절성'(38.8%)



윤 대통령 측면별 평가 분석

평가 내용 회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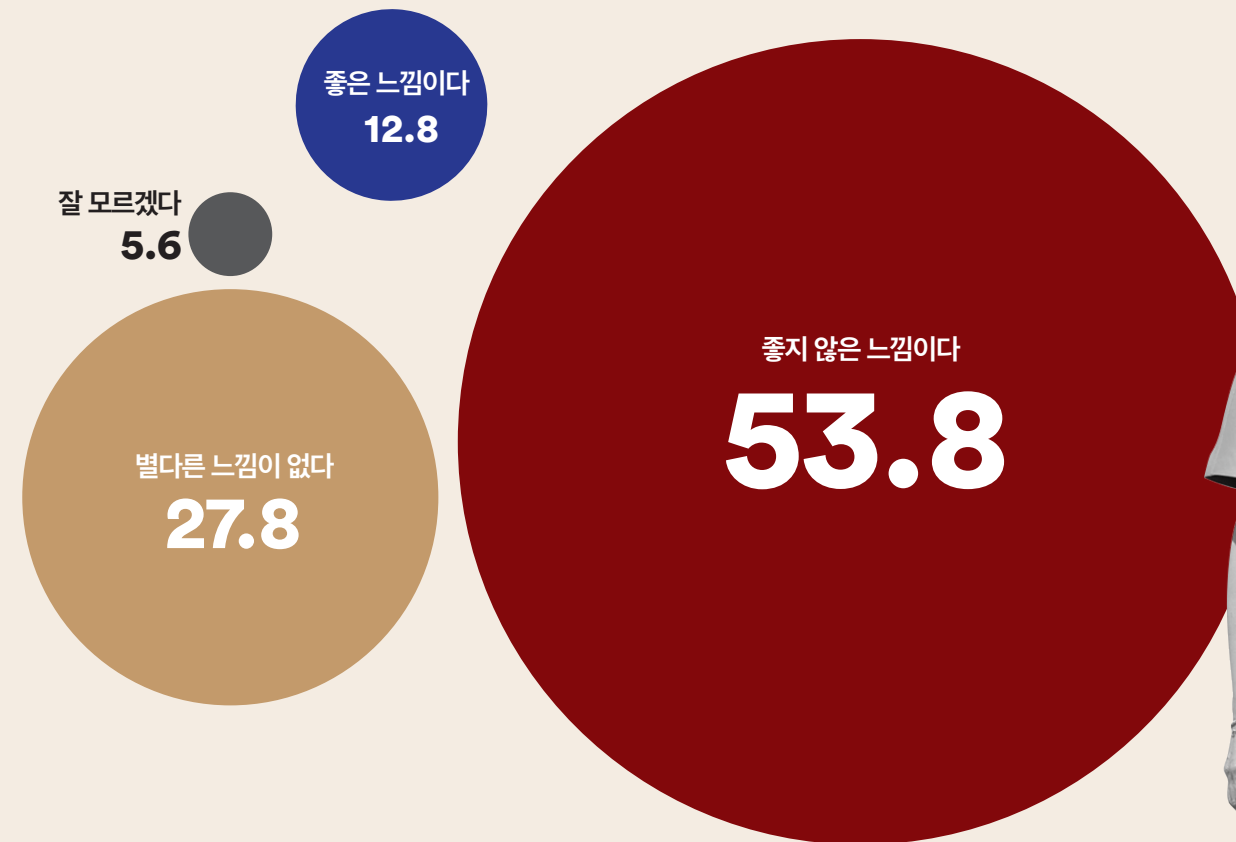
각 요소와 국정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배우자의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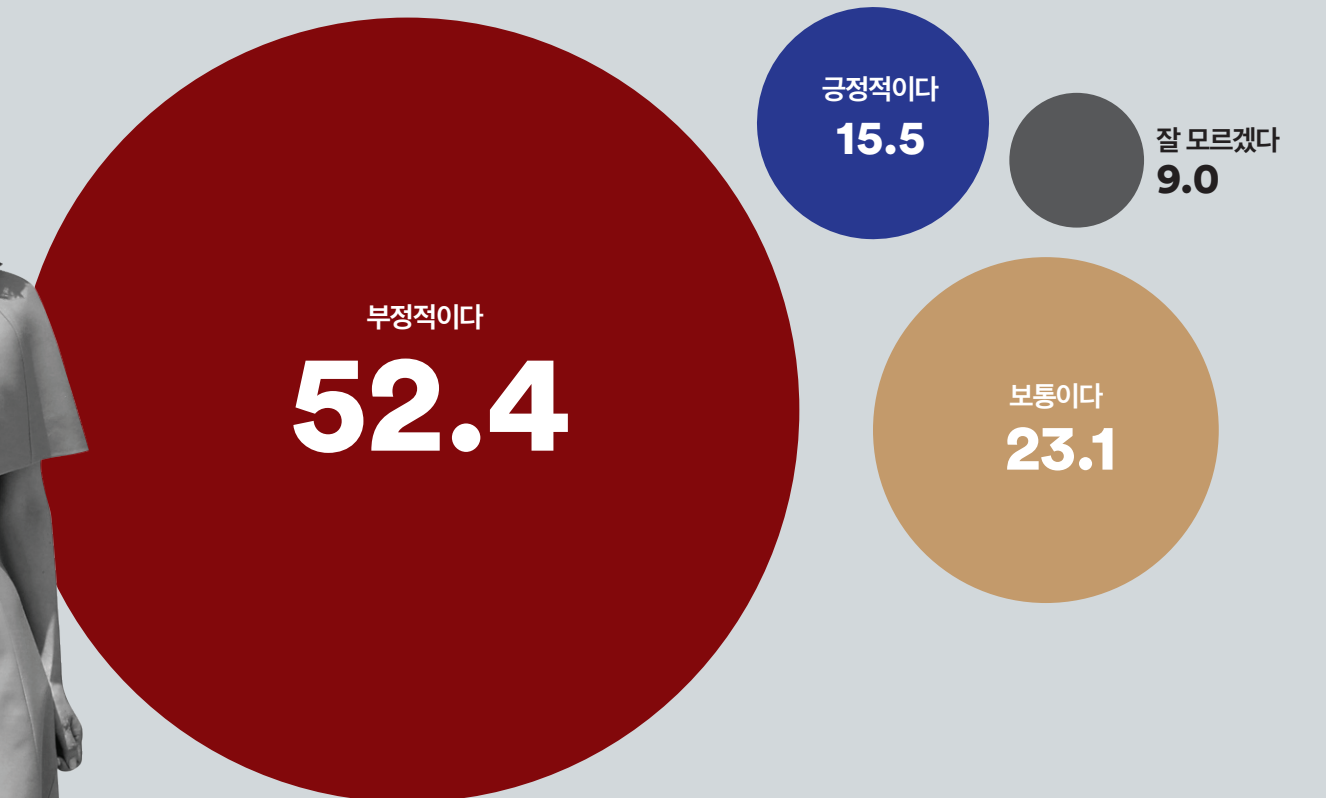
Q. 귀하께서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다음 중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별에 무관하게 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비호감 비율이 반수 이상
대구·경북(41.9%), 부산·울산·경남(42.0%)에서도 40%대의 부정적인 인식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인 인식(28.6%) 대비 부정적인 인식(34.6%)이 소폭 앞섬
특히 50대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60.3%으로 가장 많았음

배우자의 활동 평가

Q. 귀하께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별에 무관하게 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 반수 이상
대구·경북(39.7%)과 부산·울산·경남(42.4%)에서도 부정적인 인식 40%
보수층에서는 긍정(34.7%)과 부정(34.7%)이 백중세
특히 50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10명 중 6명(59.5%)으로 가장 많았음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배우자 관련 논란

Q. 귀하께서는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 중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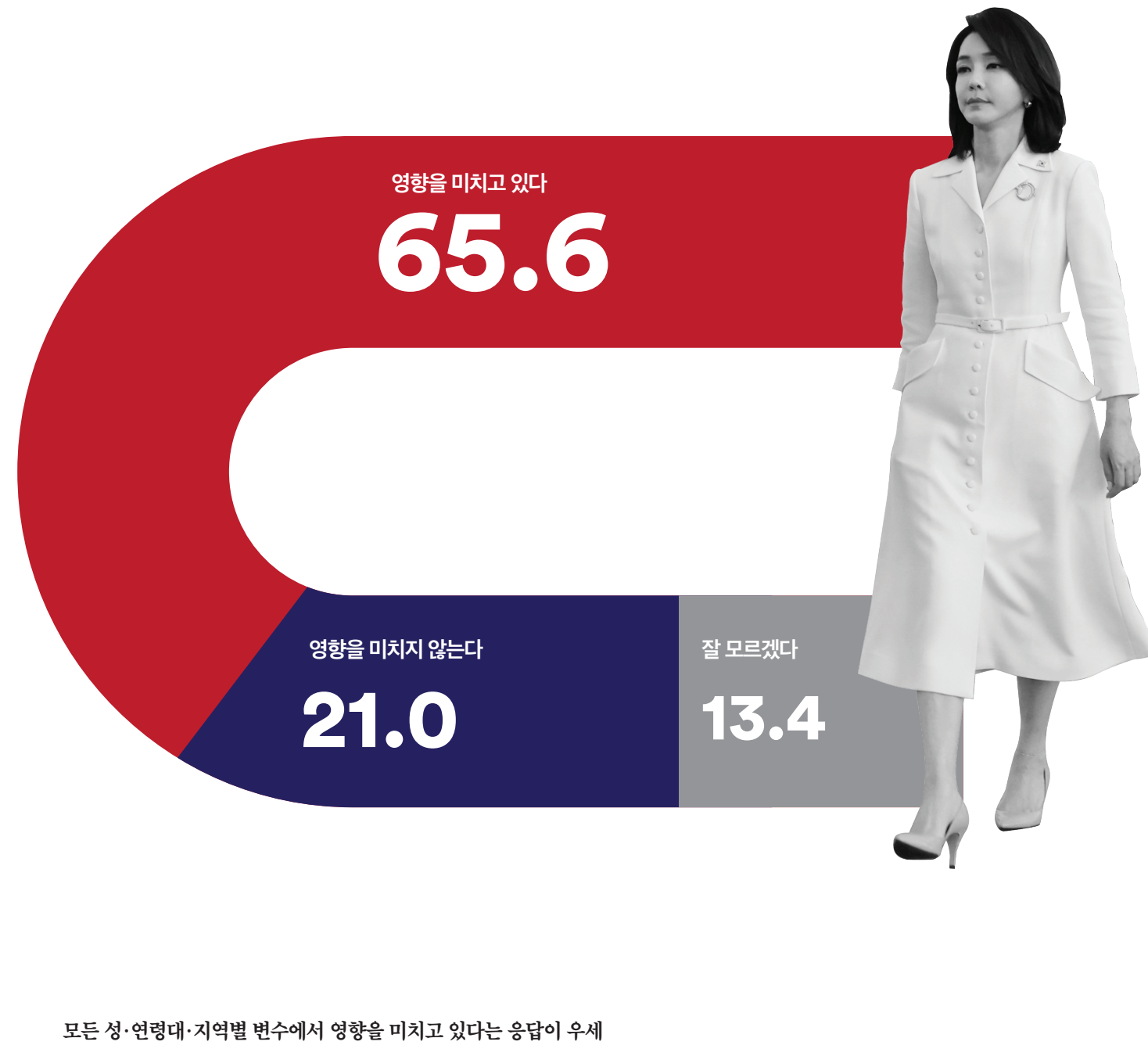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 가장 큰 문제
‘국정 개입 인상’에 대해 남성 28.1%, 여성 33.4%로 여성층이 소폭 더 많음
진보층(38.4%)과 중도층(31.7%)에서도 해당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보수층(24.9%)은 ‘본인 의혹의 소극적 소명’(24.5%)도 많았음

대통령 배우자

배우자의 활동이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Q. 귀하께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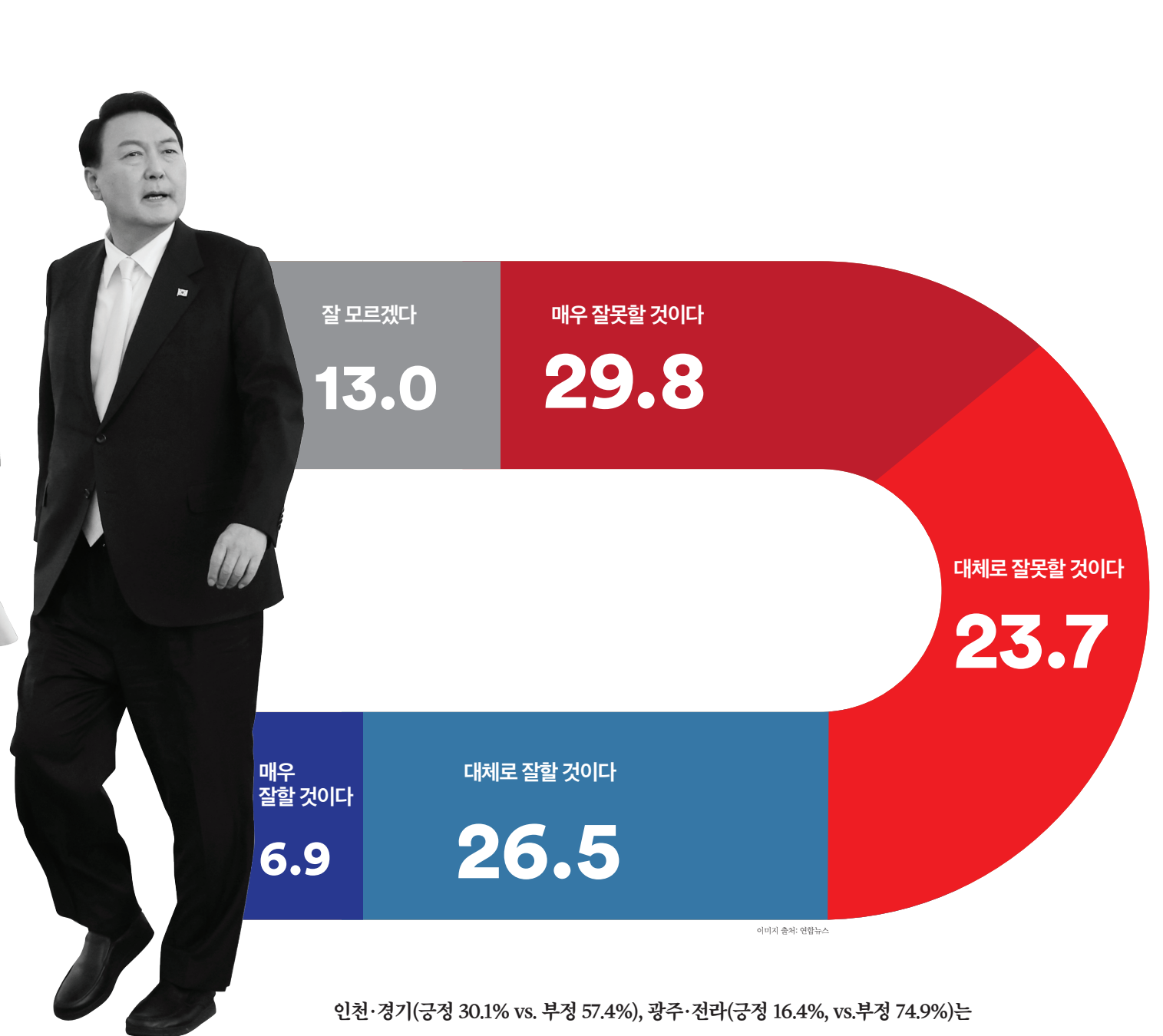


모든 성·연령대·지역별 변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
대구·경북(58.1%), 부산·울산·경남(57.8%)에서도 반수 이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69.6%)로 남성(61.6%) 대비 소폭 높음
연령대 중에서는 50대가 71.9%로 가장 많음
보수층에서도 반수 이상(50.7%)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

향후 국정 운영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

Q. 귀하께서는 윤 대통령이 현재보다 향후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인천·경기(긍정 30.1% vs. 부정 57.4%), 광주·전라(긍정 16.4%, vs.부정 74.9%)는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44.1%)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음
보수층의 기대감은 65.1%로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대비 10.2%p 더 높음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 현안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PART 1



www.flowerresearch.com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